

지선 씨의 외출

JTV 전주방송

김 철 기자



시청 발높이 버튼 - 샌스란시스코 시청 정문 앞에 설치된 발높이 버튼,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 1급인 지선 씨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여름이었다. 장애인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심지선 씨는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가 휴일과 야간에 운행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보를 해왔다. 걷지 못해 전동차를 타는 지선 씨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발이나 다름없었다. JTV는 휴일과 야간에 멈춰선 장애인 콜택시의 실태를 연속 보도했고, 이후 전북의 자치단체가 2018년 초에 이를 개선했다. 전북에서 휴일과 야간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한 건, 2007년 장애인 콜택시 도입 이

후 10년 만의 일이었다. 지선 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이 꿈만 같다며 기뻐했다.

2018년 8월, 취재팀은 지선 씨와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지선 씨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해외취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잇따랐다.

8월 26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장애인 전동차를 싣는 절차를 밟았다. 지선 씨가 수동용 휠체어로 갈아타고, 대신 무거운 전동용 휠체어를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동차에서 배터리 2개를 분리해야 했다. 그런데 분리 과정에서, 공항 직원의 실수로 배터리 선이 끊어졌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항에 도착한 뒤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장애인 전동차가 꿈쩍도 하지 않

았다. 지선 씨의 전동차는 무게가 100kg 가량으로 무거워, 성인 남성 2명이 들기에도 벅찼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배터리 선이 끊어져 있었다. 공항에서 30분가량 전동차 배터리를 만지작거렸다. 이후 운 좋게 접촉 불량이던 배터리 선이 연결됐고, 다행히 전동차가 움직였다. 취재기와 카메라 기자, 그리고 지선 씨와 코디 등 4명은 가까스로 숙소로 도착한 뒤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첫 촬영을 위해 나와 카메라 기자는 지선 씨의 방으로 갔다.

샌프란시스코 역 - 바로 아래 지하철역에서 술과 마약을 한 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선 씨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충전 문제 때문이었다. 지선 씨의 전동차는 220볼트로만 충전이 가능한데, 미국 숙소는 110볼트 전용이었다. 지선 씨는 220볼트를 110볼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어댑터 플러그(일명 돼지코)를 가져왔는데, 충전이 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110볼트의 약한 전기로는, 많은 힘이 필요한 지선 씨의 전동차를 충전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취재는 뒤로 미루고, 인터넷을 통해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하는 트랜스포머(일명 도란스)를 구입하는 일에 매달렸다. 어렵게 트랜스포머를 구입하고 첫날 취재를 마치자 지선 씨는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한 채.

둘째 날인 8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인 바트를 타고 버클리대학에 도착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벌어졌다. 장애인과 동행하는 우리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외딴 곳에 위치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마약 냄새와 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샌프란시스코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이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은 조금 어두웠다. 그때 술에 취한 흑인 2명이 우리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흑인 A : “야, 돈 많은 한국인들이네. 너 총 있냐?”

흑인 B : “이런... 총이 없네.”

흑인 A : “그럼 칼이라도 쥐.”

흑인 B : “칼을 집에 놓고 왔어.”

얼마나 놀랐던지, 코디의 얼굴에 사색이 깃들었다. 코디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했다. “정말 그때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흑인들은 마약까지 한 것 같았어요. 멀리 한국에서 세 분이 오셨고 그것도 장애인까지 왔는데, 안전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어요.”

촬영 마지막 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트윈피크 공원으로 갔다. 시내 전경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나와 카메라 기자가 먼저 내리고, 코디는 장애인 지선 씨가 차에서 내리는 걸 부족했다. 그런데 그사이 남미인 2명이 우리 차에서 카메라 장비를 훔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촬영에 열중

하고 있었는데, 한 미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당신들 차량이 도난당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깜짝 놀란 코디가 우리 차로 달려가 다행히 카메라 장비를 지킬 수 있었다. 도움을 준 그 미국인이 아니었다라면 꿈쩍없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모두 도난당할 뻔했다.

미국 촬영을 마친 뒤 12시간가량 여행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공항 호텔에서 1박을 하고, 9월 3일 아침 곧바로 일본으로 출발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무더웠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선 씨의 전동기가 또 멈췄다. 연결 부위가 끊긴 바람에 용접을 하지 않는 해법이 없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무거운 전동기를 성인 3명이 가까스로 차에 실었다. 이후 간사이 공항 근처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돌아다니며 용접을 부탁했지만 모두들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1시간을 헤매다가 혼다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다. 친절하 일본인은 우리 상황을 듣더니, 2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끊긴 전동차의 연결 부위를 용접으로 연결했다. 너무 고마워서 수고비를 드리겠다고 해도 이 일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대학 발높이 버튼 - 버클리대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발높이 버튼.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학생들도, 발을 이용해 쉽게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를 수 있다.

다음 날인 9월 4일, 아침 TV 뉴스에서 일본에 강력한 제21호 태풍 ‘제비’가 닥칠 거라는 예보가 방송됐다. 태풍 소식에 촬영을 서둘러야 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차로 4시간가량 달린 뒤 촬영지에 도착했다. 다행히 실내 촬영이라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몰아치는 강한 태풍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건물 밖의 수많은 나무가 힘없이 꺾였고, 강한 바람에 많은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시내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뒤집힌 것은 물론, 철길이 끊겨 철도 운행까지 중단됐다. 우리가 제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있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9월 5일 아침, TV를 통해 확인한 태풍 소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전날 제21

호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에 상륙하면서 일본 오사카의 중심 공항인 간사이 공항이 폐쇄된 것이다. 하루만 더 촬영하면 되는데, 설마 우리가 9월 7일로 미리 예약해둔 귀국편 비행기엔 별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상황은 비관적이었다. 간사이 공항 폐쇄로, 미리 예약해둔 귀국편 비행기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오사카 옆 간사이 공항이 최대 1주일 넘게 폐쇄될 거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제전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다. 그러나 간사이 공항 폐쇄 여파로, 오사카는 물론 도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9월 15일까지 모두 매진이었다. 그렇다고 오사카에서 1주일 넘게 더 체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 순간, 항공사 지인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다. 도쿄 옆에 이바라키라는 아주 작은 공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항을 잘 몰라서 인천으로 가는 좌석이 조금 남아있다는 내용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이바라키 공항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 오사카에서 이

바라키 공항은 승용차로 무려 8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거리였다. 그러나 대안이 없던 우리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로 8시간을 달려 이바라키 공항으로 가야 했다. 말이 8시간 주행이지 차를 직접 모는 코디도 힘들고, 지선 씨도 힘들어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 이바라키 공항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그런데 일본 이바라키 공항 직원들이, 전동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이유로 배터리를 비행기에 실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선 씨는 배터리가 없으면 전동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절대로 배터리를 놓고 갈 수 없다고 울먹었다. 1시간가량, 일본인을 설득했다. 다행히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밤늦게 인천에 도착했다. 2주간의 해외취재를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회사에 도착한 뒤 주위 사람들에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줬더니, 이런 내용을 다큐로 제작해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많았다.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올 거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에피소드를 전혀 촬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총기로 위협을 당하고, 일본에서 태풍을 만날 거라곤 사전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월 20일, 다큐 ‘지선 씨의 외출’은 순조롭게 방송됐다. 방송 이후 장애인 인권 강사인 지선 씨는 방송내용과 관련된 장애인 정책 강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왔다. 해외 촬영 도중,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지선 씨는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취재팀은 “괜찮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며 서로를 독려했다.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합쳐 다큐를 만들었는데, 반응도 좋다고 하니 나름 뿌듯했다.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각종 난관을 무사히 이겨내고 촬영을 마쳤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지선 씨와 함께한 덕분에, 사전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을 미국과 일본에서 취재했다. 미국은 문을 여는 버튼이 손 높이는 물론 발 높이에도 설치돼 있다. 손을 높이 들 수 없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장애인 친화적 건물에만 건축물 승인을 내주고 있다. 일

팔로 알토(캘리포니아 도시) - 불과 100미터인 상점가에 장애인 전동차 진입을 위한 경사로가 5곳이나 된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하고 있다.



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을 위한 침대를 만들었다. 전신 장애인들은 휴게실 침대 덕분에 장시간 여행을 하다가 잠시 몸을 눕혀 스트레칭도 하는데 이는 욕창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지선 씨가 현지인들에게 물어봐 알아낸 취재물이었다. 지선 씨가 현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한국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냈다. 때로는 취재기자보다 더 열정적인 지선 씨의 행동을 보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국장 니콜 씨는 이런 말을 했다.

“계단 없는 경사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 이동에도 이롭다. 남을 위한 작은 배려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즉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방송 이후 많은 비장애인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용에 적잖은 깨우침을 얻었다고 호평해주셨다. 그동안 장애인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했다는 시청자도 많았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지선 씨가 좋아하는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돈다.

[용혜원의 ‘동행’ 중에서]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

